

연중 제32주일 복음나누기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마태 25,13)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나눕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1) - 마태 25,1-13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1-1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1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2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4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5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6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7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8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11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12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13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절, 한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그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며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오늘 말씀에서 “그때에”(마태 25,1)로 시작되는 비유의 서두는 미래에 닥칠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24,44.50; 25,31-45 참조) 언제였던가요? 우리나라에서도 휴거설로 민심을 흔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2독서에서와 같이 초대교회 신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리라는 기대 속에 있었지만 재림이 지연되자 혼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1테살 4,13-14; 마태 24,23-28 참조) 마태오는 종말 심판설교(24-25장)를 전하며 반드시 ‘종말은 오겠지만 그때는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종말의 지연과 함께 종말 사건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열 처녀의 비유’를 시작합니다.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25,1)는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구분됩니다.(2절) 산상설교에서 슬기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마태 7,24-27; 시편 14,1 참조) 그러면 무엇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일까요?

신랑이 늦어지자 기다리다 ‘모두 잠이 들었던’ 열 처녀와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는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대조를 이룹니다.(마태 25,5-6) 졸다가 잠이 들었다는 것 자체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실책은 아니지만 ‘한밤중’은 어둠의 절정으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각인 동시에 새날이 시작되는 시간임을 드러냅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7절) 한밤중까지 밝혀두었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열 처녀의 소임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라면, 그들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여부가 그들의 실태를 평가하게 합니다.(2-4절)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비로소 준비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미리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10-11절) 슬기로운 처녀들은 밤길을 달려온 신랑의 발걸음을 등불로 밝히며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힌 후였습니다.(10-11절) 신약성경에서 혼인 잔치는 하느님 나라와 직결되는 구원의 사건이며(22,1-14) 신랑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뜻합니다.(마태 9,15; 요한 3,29; 2코린 11,2) 슬기로운 처녀들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닫힌 문을 두드리는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되지 않은 이의 처절한 모습을 대변합니다.(마태 25,11)

또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처녀들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12절)는 신랑의 외면은,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7,21-23 참조)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이는 처녀들의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이 지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행동의 실천과 관련됨을 나타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꺼져가는 등불을 바라보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25,8)고 청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 부탁을 거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9절) 이 기름은 하느님의 뜻에 따른 행실 곧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기 때문에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6,19-21.24.33 참조) 따라서 어리석은 처녀들의 중대한 과오는 필요한 시간, 필요한 곳에서 밝혀야 할 사랑의 불꽃 곧 사랑의 내적 힘을 기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5,14-16; 6,22-23참조) 하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어느 때가 되든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 해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며 사랑의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마태 25,13)

(해설을 듣고 자신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말씀으로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 묵상나누기

-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때 무

엇을 느꼈는지 함께 나눠주십시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개인의 특별한 지향이나 소망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